

NEAR News

하나되는 동북아시아, 하나되는 공동체 NEAR | One Northeast Asia Region, One Community NEAR

2015. 1-2

Vol. 60

제10차 NEAR총회 기념촬영



특별기고 - 신년인사

NEAR 사무총장 | NEAR의장,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지사 | 몽골 흙스굴아이막지사
대한민국 경상북도지사 |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주석 | 일본 돗토리현지사

이번 호의 동정

NEAR활동 | 사무국소식 | 회원자치단체 동정 | 제2회 청소년에세이공모전 최우수작

기획 취재

제10차 NEAR총회

연말연시특집

NEAR행사 뒷이야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 News

NEAR News는 회원단체의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NEAR의 공식 메신저로 창간되었습니다. NEAR사무국의 활동상황, 회원단체 동정, 각종기고 및 공지 사항 등을 담아 격월로 발간하여, 회원단체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NEAR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NEAR News는 회원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이며, 동북아시아지역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NEAR News에 수록하고 싶은 좋은 원고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NEAR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Vol. 60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 76개 광역지방정부(71개 정회원 및 5개 옵저버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방외교협력체이자 국제기구입니다.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연합헌장을 채택하고 경제통상, 교육문화교류, 환경,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관광, 해양어업, 광물자원개발 조정, 에너지 기후변화, 여성 아동, 생명 의료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최대의 지방정부 협력기구인 AER(유럽 지방정부연합), R-20(기후변화행동연합) 등 국제기구와도 교류를 활성화하여 파트너십 체결, 공동사업추진 등 동북아를 넘어서 전세계와 소통하는 국제협력네트워크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NEAR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연합의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광역지방정부는 연합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특별기고

동북아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김재효
NEAR 사무총장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어느 해 보다 심했던 2014년을 뒤로 하고, 평화와 안정이 기대되는 2015년 '양의 해'가 밝아 왔다.

2008년 이래 지속되어 오던 글로벌 경제 위기는 지난해에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회복세를 보였으나, 유럽과 일본의 어려움은 지속되었으며, 중국,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도 성장률의 회복을 보이지 못하였다. 올해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이미 종료시킨 양적 완화(QE) 정책을 유럽과 일본이 뒤따라 확대시키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환율 경쟁을 촉발하여 세계 경제의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는 정치, 안보 측면에서도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의 이슬람국가(IS) 사태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금년에도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부 아프리카지역에 발병한 에볼라 사태도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다행스런 점은 지난 1992년부터 계속된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방안 노력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류해 오다, 2014년 말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COP 20 회의에 이어, 금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유엔 세계기후변화 정상회의(COP 21)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간의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를 이루어 지구의 미래를 위한 대 타협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와 액션 플랜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희망적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단순한 자연 현상에 의한 위협 요소를 넘어서, 인류가 직면한 지정학적인 불안요소로 대두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적 분쟁 등 안보 위기로까지 확대될 만큼 시급한 과제이다.

동북아에도 지난해 중 영토분쟁과 역사 수정주의로 인한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었으나, 올해는 한, 중, 일을 중심으로 전환점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국가간의 화합분위기와 더불어, 지방정부간에도 보다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양적 완화조치로 인한 인위적인 환율경쟁이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문화와 관광분야부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인류의 당면 과제인 기후변화, 전염병, 빈곤과 식량부족 문제에 있어서 동북아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를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모든 회원지역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노력이 요구되며, 다양한 분과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천이 앞서는 지방정부가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수행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예로셴코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치**
NEAR의장,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지사

존경하는 NEAR 회원단체 여러분! 존경하는 NEAR NEWS 독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언제나 그렇듯 우리들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룩한 것과 안타깝게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되돌아 보고, 성공에 다다른 일들은 분석정리하고, 또 실패한 일은 다음의 일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 적지 않은 굵직한 국제행사를 포함해 다양하고 주목할 만한 행사들을 많이 치렀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르쿠츠크주는 동북아 국가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르쿠츠크주는 2016년 제11회 NEAR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 동북아 국가들과 경제무역 및 인도적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국제 행사경험 노하우와 손님을 반기는 이르쿠츠크주인만큼 우리 주가 NEAR 총회 개최에 적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는 최고 수준의 총회 개최를 위해 모든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을 앞두고 여러분이 계획한 일의 번영, 성공과 더불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안녕,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에르덴바타르
몽골 흠스굴아이막지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전 회원단체 및 사무국 관계자 모두에게 흠스굴아이막의 주민을 대표하여 다가오는 새해의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흠스굴아이막은 몽골 북부에 위치하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로는 몽골의 수도 울랑바타르 다음으로 많습니다. ‘흠스굴’아이막은 몽골의 푸른 진주로 알려진 흠스굴 호수에서 유래되었으며, 소수민족의 문화, 무당문화, 역사유적 및 자연경관지로 몽골의 관광 핵심지역입니다.

같은 동북아시아의 구성원인 러시아연방의 투바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대전시 서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일본의 니가타시와 협력관계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연합사무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국제교류 분야에 성과 있는 한 해였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다양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치단체간 교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다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합의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회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연합활동에 참여하고 상호 교류하면 지역의 공동발전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015년에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및 회원단체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관용
한국 경상북도지사

2015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 여러분께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6기로 재선임되어 경북도 새로운 옹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5년도는 새로운 비전 및 전략으로 경북의 국제화를 한단계 높이고 신경북도청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NEAR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8월 극동러시아의 정치·경제·군사 중심지인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의 NEAR 국제포럼 개최는 북방교류 활성화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었으며, 경북도에서는 하바롭스크주와의 우호교류를 위한 의정서 체결로 관광·의료·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며, 10월 전남 총회에서는 중국 지린성과 러시아 하카시아 공화국이 NEAR 회원으로 가입하여 73개 회원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NEAR는 회원 상호간의 국제교류 협력 및 자매지역 활성화, 국제행사 참가 및 홍보 등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금년에는 73개 회원단체가 상호간의 교류 및 지방외교가 더욱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선도하기 위하여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새마을세계화 등 사업으로 인문교류와 창조경제의 융합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다가오는 2015년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구-경북 세계물포럼’과 ‘실�크로드문화대축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당면한 국제적인 행사의 성공을 위해 회원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번창과 행복, 건강을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관용



리우후이(劉慧)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주석

말의 해가 가고, 양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는 아름다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닝샤후이족자치구 인민정부와 654만 명의 닝샤 지역민을 대표하여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함께 새해 축복을 전합니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창립 이후, 모든 회원간의 상호원원, 교류협력, 개방경쟁 등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며, 경제무역, 문화관광, 농업발전, 과학기술, 기초시설 등 분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합은 지방정부 주요인사의 전략적 사고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매개체이자 전문가를 비롯한 학자에게는 발전의 방법을 탐구하는 참신한 무대이며, 사회각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닝샤는 중국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변방의 강남”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에너지, 농업, 관광 등 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석유, 가스 파이프가 지나가는 닝샤는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구간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지방정부로서는 유일하게 전 지역이 내륙개방형 경제시범구로 지정되어 그 발전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 73개 회원지방정부의 하나로서, 닝샤는 회원의 책임을 열심히 이행하고 있으며, 연합의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원과의 교류협력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연합의 제9차 총회를 유치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노력하여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실크로드경제권” 조성과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전략구상을 제안하여, 동북아를 비롯한 관련국가의 폭넓은 지지와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닝샤는 이러한 국가의 전략적 정책을 계기로, 새로운 실크로드의 주요통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인촨시에서는 제2회 중국-아랍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우리의 성대한 모임에 참가하시기를 정중히 초청합니다. 연합의 회원 여러분들이 닝샤를 방문하셔서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고 발전의 길을 함께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연합의 각 회원지역들과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문화관광,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등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닝샤는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길 원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동북아지역이 보다 큰 범위에서, 보다 깊은 내용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교류융합과 개방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동북아지역의 화합과 협력, 번영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을 축원합니다.

刘慧



헤라이 신지(平井伸治)
일본 돗토리현지사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 말씀 드립니다.

지역상호교류 증진 및 공동발전 그리고 세계평화 기여를 목적으로 창설된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NEAR)이 머지않아 사람으로 따지면 성인이 되는 20주년을 맞이합니다.

동북아시아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2018년 한국 평창 동계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세계 장애인 올림픽, Paralympics) 개최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돗토리현에서도 동북아시아지역과의 연결고리가 향후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강원도, 중국 지린성, 러시아 연해변경주 그리고 몽골 투브아이막과는 매년 수장들과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대 5각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에 대해 논하는 '동북아시아지역 국제교류·협력지방정부 정상회담'을 1994년부터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2014년)에는 교류 20주년을 맞이하여,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일 지사·성장(省長)포럼'에 돗토리현 지사로서 직접 참가하여 중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가 중요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돗토리현에서는 바다 건너 여러나라와 가깝다는 거리적 이점을 살려 '동북아시아 게이트 웨이'를 구상하여, 동북아시아지역과 일본과의 교통 연결망 형성을 위해 교통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돗토리현은 한국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변경주의 협력 하에 일본과 한국을 지나 러시아를 연결하는 DBS 크루즈 페리를 운항하고 있으며, 5년간 멈추지 않고 사람과 물건을 운반하는 대동맥으로서 그 루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일환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위해 '동북아시아 지방정부협력위원회회의'를 돗토리현에서 개최하였으며, 바다와 육지를 통합한 일관수송과 관련된 로지스틱스(logistics)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로지스틱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돗토리공항은 현내 제일의 경승지인 '돗토리 사구(모래언덕)'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탐정 코난(만화)'이 있어, 다가오는 봄에 '돗토리 사구 코난 공항'이라는 애칭으로 탈바꿈합니다. '요괴 인간 타요마(원작명:게게게노 키타로)' 작가인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 씨와 명탐정 코난 작가인 아오야마 고쇼(青山剛昌) 씨가 태어난 고향이 우리 돗토리현이며, 현내에 '타요마(키타로, 鬼太郎)'와 '코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돗토리현에는 세계 지오파크가 인정한 '산인해안(山陰海岸)'과 10개의 온천지, 그리고 일본 서쪽지역 제일의 스키장이 있는 다이센(大山, 산 이름) 등 멋진 자연이 있습니다. 트레일 워킹 진흥을 위한 'World Trails Conference'를 돗토리현에서 개최할지 여부가 올해 초 한국 제주도에서 결정됩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Asia Trails Conference'가 돗토리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관계자들도 붐빌 듯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돗토리현에 방문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NEAR 활동

제2회 청소년에세이 공모전 시상

NEAR사무국에서는 회원단체간 협력 교류활성화를 위해 회원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14~18세)을 대상으로 제2회 NEAR청소년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했다. 동북아시아에 관련된 자유주제로 중국 6편, 일본 4편, 한국 9편, 몽골 5편, 러시아 22편으로 총 46편이 제출되었으며, 한국 경상북도 포항 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허선영 학생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되었다. 한편, 중국의 장위엔, 일본의 미시마 아오이, 한국의 박수완, 몽골의 바트체체, 러시아의 석사 알렉산드라 5명에게는 각각 우수상이 수여되었다.

이번 호에는 최우수작을 게재하였고, 다음 호(3~4월호)에 우수작을 게재할 예정이다.



NEAR 사무국 대표단 중국 랴오닝성 및 닝샤후이족자치구 방문



랴오닝성 의사판공실 직원들과 함께



장화이이(좌) 닝샤 의사판공실처장과 이종환(우) 사무처장

이종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국 일행은 신규회원유치 및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1월 24일~28일의 기간 동안 중국 랴오닝성과 닝샤후이족자치구를 방문했다. 24일 랴오닝성 선양시 랴오닝우의 호텔에서

까오아이화(高愛華) 랴오닝성 의사판공실 부주임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만찬을 마련하여 사무국일행을 환영해 주었고, 이 자리에서 이 사무처장은 NEAR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랴오닝성의 신규회원가입을 요청했다. 이에 까오 부주임은 랴오닝성이 현재 옵저버 자격으로 NEAR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NEAR와 더 많은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사무국 일행은 2012년 제9차 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닝샤후이족자치구를 방문하여 장화이이 아시아처 처장을 비롯한 닝샤후이족자치구 의사판공실의 실무자 미팅을 통해 회원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방안을 협의했다.

사무국 소식

제7회 국제학술회의 참석

11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7회 국제학술회의가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경제 추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금번 학술회의는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창립7주년을 맞아 초국경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한경제공동체 추진전략과 동시에 한미 및 군사안보 측면의 조화전략을 논의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전체행사는 1부의 국제학술회의와 2부의 창립7주년 기념식으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서는 이승률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의 개회사와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세션은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한경제공동체 추진전략', 제2세션은 '통일을 향한 한미군사동맹과 한중안보협력의 조화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제3세션은 '종합토의'가 이루어졌다.

2부 기념식에서는 '와다 하루끼의 북한현대사',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등을 저술하면서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로 와다 하루끼 도쿄대 명예교수에게 제7회 동북아국제협력상이 수여되었다.

이 날 김재효 NEAR 사무총장은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동북아 국제협력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공유했다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장 NEAR 사무국 방문



11월 10일 일본 시마네현 문화국제과 와카쓰키 신지과장이 NEAR 사무국을 방문했다.

와카쓰키 과장은 김재효 NEAR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의 직원들과 만나 NEAR의 발전방향과 한일간의 국제교류 특히, 경상북도와 시마네현과의 교류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와카쓰키 과장의 한국방문은 지난 11월 7일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 주최한 '일본어 스피치 대회(日本語 弁論大会)'에 참석하여 '시마네현 지사상'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더불어 NEAR 사무국의 방문도 함께 이루어졌다.

시마네현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창설 전 그 전신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의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NEAR의 교육문화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를 맡아 NEAR회원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NEAR 사무국의 마쓰오 슈이치로 씨가 시마네현에서 파견되어 지난 4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동북아 신외교질서와 한국의 외교정책 세미나 참석



11월 12일 동북아 신외교질서와 한국의 외교정책 세미나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각계인사 2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심윤조 국회의원의 사회로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 세종연구소 이태환 박사, 21세기군사연구소 김진욱 소장이 '동북아 신외교질서와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 날 김재효 NEAR사무총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NEAR의 역할을 홍보하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외교부, 국방부가 후원하고 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동북아공동체 연구재단이 협력하였다.

인천교류재단 인천팸투어 참석

NEAR사무국 해외파견공무원이 11월 28일 인천교류재단에서 주최하는 인천 팸투어(Familiarization)에 참가하였다. 이번 팸투어는 한국 내 국제기구, 외교공관, 국제교류기관 관계자들을 위한 '2014 인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첨단시설로 설계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대표 지역 송도, 영종 일대를 투어하고, 주요 컨벤션 시설 시찰과 인천 역사 유적지 탐방, 한국전통문화체험으로 진행되었다.

NEAR 해외파견공무원 치홍정 씨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후, "국제교류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말했다.



회원자치단체 동정

후난성 - 중국

“2014중국(창사) 국제조소문화예술제” 개최

후난조소원(湖南雕塑院) 레이이신(雷宜铨) 원장이 제안했던 2014 중국(창사) 조소문화예술제가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2012년 초, 레이이신 원장의 작품 “마틴 루터 킹 대형조각상”이 미국 워싱턴 국가기념광장에 세워져 “중국 레이”는 국제 조소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후, 레이이신은 꿈이 하나 생겼는데, 창사에서 국제조소제를 개최하여 도시의 조소문화를 발전시키고, 조소예술과 도시인문정신이 융합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번 조소예술제는 “도시정신 · 도시문화 · 도시창조”를 주제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7개 국가의 21명 세계 조소대가들이 창사에 모여 현장예술 창작을 진행하였으며,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남겼다. 또한 현장을 개방하고 학교에서 예술강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민은 매우 진귀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지린성 - 중국

2015 중국 창바이산(백두산) 눈 페스티벌 및 2015 창바이산 국제 빙설 카니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창바이산은 명실상부한 중국 눈의 고장이자,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개최되는 “2015 중국 창바이산 국제 눈 페스티벌”을 통해 창바이산의 겨울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눈 페스티벌 기간 동안 창바이산의 관광지구와 명소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체험여행상품을 내놓아 더 많은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겨울스포츠의 즐거움을 맛보게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행사기간 동안 창바이산 국제 눈 조각 대회, 화산온천체험 활동, 미식(美食) 주간 행사, 중국-유럽 소도시 시장포럼, 빙설문화 청년포럼, 제1회 설원 골프 초청경기, 창바이산 국제 빙설사진 페스티벌 등 관련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도야마현 - 일본

도야마 만(灣)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에 가입하다

10월 18일 한국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 총회에서 도야마 만(일본 도야마현 소재)의 가입이 결정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본부는 프랑스)’는 세계유산인 프랑스 몽생미셸만, 베트남 할롱만, 국제적 관광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을 비롯한 24개국 1지역 38개의 만이 가입하여 만을 활용한 관광진흥과 자원보전을 목적으로 한 비정부단체(NGO)이며 UN교육과학문화기관(유네스코)가 후원하고 있다.

도야마만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바다 너머로 3,000m급의 다테야마(立山) 산봉우리의 전경을 볼 수 있고, 신기루 등 신비한 자연현상을 비롯해 매몰림과 반딧불오징어 등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현민이 직접 참가하는 ‘물과 나무가 많은 숲 만들기’ 등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야마만은 3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동해(일본해)안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현재 도야마현에서는 도야마만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사이클링 코스, 사이클 스테이션 및 카페 정비를 비롯해 마린스포츠 개발, 외항 크루즈객선 유치, 마리나(marina) 시설 확장과 다른 항구에 정착하는 선박 오너 유치를 진행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도야마만의 매력 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다 너머 보이는 다테야마산봉우리 (히미(氷見)시 나다우라(瀧浦) 해안에서 촬영)



가림비 (이미즈(射水)시, 카이오마루(海王丸) 파크)

아오모리현 - 일본

아오모리현 · 아오모리시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의 '우호경제 · 문화교류협정' 체결 10주년

아오모리현 · 아오모리시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와의 우호경제 · 문화교류협정 체결 10주년 기념식이 10월 28일 다롄시내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다롄시와의 교류협정은 아오모리현과는 경제를, 아오모리시와는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한다는 내용이다. 2004년 12월 협정체결 이후, 아오모리현은 다롄시내의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를 개설하는 등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급속하게 경제 발전하는 다롄시와의 관계 강화에 노력해왔다. 그리고 아오모리시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정학교간의 상호방문 등을 실시해왔다.

기념식은 양 지역의 행정 · 기업 관계자와 같은 날 개최된 기념사업인 '우호바둑 대회' 참가자 120여 명이 참가하여, 10년간의 교류를 되돌아보며 향후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했다. 그 외에도, 비즈니스교류 및 청소년교류를 좀 더 촉진하고, 관광 및 농림수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교류실현을 위해 쌍방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식에서 다롄시와 아오모리 바둑협회대표에게 기념품 수여하는 장면
(사진 오른쪽부터 시카나이(鹿内) 아오모리 시장과 아오모리현 부지사)

광주광역시 - 한국

한 · 중 노인, 문화 · 체육 교류로 하나된다

1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광주광역시에서는 '한 · 중 노인 문화 · 체육교류 행사'를 개최하였다.

중국 노인단체들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다채로운 행사에 참가하였다.

방문 첫날인 4일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노인 문화체육교류팀이 63명이 빗고노인건강타운 소속 100여 명과 문화교류와 친선게이트볼경기를 하며 우의를 다졌다. 5일에는 광주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중국의 안후이성 쉬안청시 민간 교류단 90여 명과 광주의 동구, 북구 노인복지관의 70여 명이 공연 등을 통해 교류했다. 이 날 교류 행사에서 중국 노인들은 건강을 위해 연마하는 태극선, 태극검무 등을, 광주의 노인들은 스포츠 댄스, 국악사물놀이, 한국 전통춤 등을 선보이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노인단체들은 행사 전후 국립광주박물관과 충장로 등을 방문해 광주의 멋과

맛을 즐겼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09년 이후 중국 노인단체 유치를 위해 중국 관광시장을 집중 공략, 허난성과 지린성, 텐진시 등 10여 개 지역에서 노인교류단을 유치해 총 2만 2,000여 명과 광주지역 노인 7,000여 명이 교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한 · 중 노인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 한국

건축 · 공공디자인 문화제 개막

2014 충남 건축 · 공공디자인 문화제가 11월 6일에서 9일까지 나흘간 세계적인 자연생태의 도시 서천에서 개최되었다. '숨-자연에 순응하는 건축,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공디자인'을 테마로 한 이번 문화제는 자연과 사람, 자연과 건축, 자연과 디자인의 생명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 분야에서는 충남건축문화대전 우수작품이 전시와 함께 어린이 집 그리기 · 만들기 우수작품 전시회가 열렸고,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2014 공공디자인전 공모 우수작품과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인증제 인증제품 전시회가 열렸다.

또 작품전으로는 충남건축사, 대학교수, 국제공공디자인 초대전, 충청남도 교육청작품전, 회화전, 서천지역 공공디자인 작품전이 전시되었고, 국립생태원, 봄의 마을, 문화예술창작공간을 대상으로 테마기행이 개최되었다.

부대 행사로는 서천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개막식과 함께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7일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GREEN TOMORROW' 세미나가 개최하였다. 9일에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아저씨 창의 체험'이 많은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였다.



고비알타이아이막 – 몽골

제9회 낙타 축제 개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고비알타이아이막의 투그룩숨에서 제9회 낙타 축제가 개최되었다.

축제의 개막식은 낙타를 탄 유목민 행렬을 시작으로 낙타에 짐 싣는 시연을 하는 등 낙타와 관련된 전통과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축제기간에는 낙타유제품, 낙타 털실 제품, 낙타 용품 등의 전시회, 낙타를 탄 멋진 커플 선발대회, 낙타 연구 학자 및 낙타 주민이 참여한 낙타 번식 환경과 낙타 주민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낙타는 몇 일 동안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유목생활에 아주 적합한 동물로 낙타의 보호와 번식, 경제적 효익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세계 쌍봉낙타의 30%는 몽골에 있다.



알타이변경주– 러시아

제8회 상하이협력기구(SCO) 참가국 교육주간행사와 제5회 SCO 교육부 장관 회의 개최



제8회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참가국 교육주간행사와 제5회 SCO 교육부 장관 회의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알타이 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SCO 관련 행사는 개최한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 대학이 아닌 알타이국립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의 주요 참석자는 러시아 교육과학부 차관,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차관, 중국 교육부 차관, 키르기스스탄 교육과학부 장관,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 차관, SCO 사무국 국장, SCO 대학총장 협의회 회장, 그 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25개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제8회 교육주간행사 개막식 이후, 'SCO 대학'의 역할과 위치란 주제로 본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SCO 대학'의 시스템 통합에 관한 현실적 문제, 대학원과정의 장기발전적인 학문교육과 구체적 활동의 혁신적 프로그램, 공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전문가 실무진을 구성하여 교육분야 협력 활동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10월 8일에는 제5회 SCO 교육부 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SCO 대학' 졸업장의 규정과 양식을 통일화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SCO참가국과 'SCO 대학'들간의 협력을 위한 기념 식수식과 기념비 제막식 행사도 치러졌다.

※ SCO 대학: SCO 국가의 대학들간에 사이버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국제교육프로그램 대학. 현재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82개 대학이 속해 있음

NEAR회원단체를 위한 국제행사 안내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포럼’– 러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발전전략



2015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제12회 크라스노야르스크경제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경제포럼은 소치포럼, 상트페테르부르크포럼과 더불어 러시아의 3대 포럼 중의 하나이다.

포럼의 주제는 러시아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러시아 – 브릭스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과 수입대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의 주요내용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2015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의 통합 프로세스 확대전망, 러시아 경제의 경쟁력 강화 등이 중점 논의된다. 이외에도 크라스노야르스크경제포럼에서 매년 논의되는 지역문제, 지역개발, 주민복지향상 등도 포럼의 쟁점이 될 것이다.

포럼의 프로그램 중에 농업분야 개발의 현실적 문제, 투자인프라, 수송, 통신 및 IT산업에 관한 라운드테이블도 준비되어있다. 크라스노야르스크경제포럼은 이미 '크라스노야르스크식'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유명해서 러시아 연방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사회 전문가 대표들이 참석하여 논의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폐널토론과 본회의를 마친 후 결과물로 포럼장소에서 실질적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 참여조건 등 이 포럼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사이트 <http://krasnoforum.ru/> 참조

제2회 NEAR 청소년에세이 공모전

공모전 개요

NEAR사무국에서는 회원단체간 실질적인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회원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14~18세)을 대상으로 제2회 NEAR청소년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했다. 동북아시아에 관련된 자유주제로 중국 6편, 일본 4편, 한국 9편, 몽골 5편, 러시아 22편으로 총 46편이 제출되었으며, 최우수작 1편과 각 국가별 우수작 1편씩 시상하였다.

제2회 NEAR 청소년에세이 | 최우수작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살펴보기



포항여자고등학교 1학년
허선영

최근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아시아, 특히 우리 동북아시아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난다.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등 세계의 주요 이슈를 이끌어 가는 영향력 있는 두 나라(미국, 중국)라는 의미인 G2 혹은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나라라는 뜻의 BIG1으로까지 불리는 중국과 지금까지 동양의 선진국으로 동양적 신비감을 자아내고 경제적인 위상이 높았던 일본에 걸쳐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IT강대국으로 뜨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시아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면모는 쟁쟁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 중, 일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이 세 나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남북통일이 된다는 전제를 가정해본다면-멀지 않은 미래에 실현될 것이므로-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의 연결은 한-러-중을 잇는 중요역할을 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해저터널사업은 두 나라의 통로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이다. 한-러-중을 잇는 두 철도의 연결이 한국에 중추역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될 것이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과의 해저터널을 연결해 무려 네 나라 간의 거대한 교통망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한국이 동북아를 이끌어갈 거대국가 간의 경제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미시적으로는 네 나라의 국경을 초월한 연결망이지만 거시적으로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동북아 지역의 화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몇 개월 전에 나는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수의학과에 멘토링을 받으러 서울로 갔다. 건국대학교에서 멘토링 수업을 받으면서 해부학 실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때 처음 개의 뼈 표본을 보았다. 뼈는 서로 잘 맞는 뼈와 맞닿아 관절을 형성하고 그 뼈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과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이 결합이 우리 동북아시아 삼국 간 화합의 중요성에 대한 비유처럼 느껴졌다. 일단 동북아 지역 3국이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각국 간의 다양한 의견과 추구하는 바가 조화롭게 맞물려야 한다. 만약 한 부분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뼈저덕 소리가 날 수 있다. 또 요철의 존재는 각자만의 기능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각국 간의 볼록함과 오목함은 기능과 할 일이 다르다는 뜻이지만 서로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지향점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 안정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화합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모든 신경의 중추가 되는 뇌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뼈가 지닌 제도나 정책은 모두 뇌의 신호에 의해 수립되지 않는가? 그래서 미래 사회를 맡아갈 우리 청소년의 다른 국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시아의 청소년들, 아니 나는 과연 동북아시아에 대해 생각을 해 본적이 있기는 할까? 당장 지금 이 시대의 17세 청소년인 나로서도, 부끄럽지만 늘 중국 한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정적 유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고 1학년, 지금 나의 시절은 자신의 꿈을 키우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시절이라고 한다. 이 아름다운 시절을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17세의 소녀들이 즐기고 있으며, 모두 나처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팔찌를 우리 반 아이들과 같이 사면서 60년 전의 그 소녀들은 행복했을까? 그 시절 중국과 일본의 소녀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하나로 연대해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과거 동북아 지역에 일어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병행되어야 하고 각국의 서로를 향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나누고 토론하고 문화적 교류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이 따라오면 좋겠다. 과거 조선과 중국의 소녀가 흘린 눈물을 이제 일본 소녀가 닦아주며 서로의 고통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과거를 넘어서 하나된 미래를 위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나의 주장을 당당히 내세우고, 꿈을 위해 노력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배울 때, 휴전선 건너편의 17살 소녀가 꾸는 꿈, 중국의 소녀가 가진 비전, 일본의 소녀가 지닌 미소를 생각하며 어떻게 생활하고 성장하고 있을까로 생각이 확대되고 각국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재난을 내 문제처럼 고민하고 도와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에 대한 갈등을 이제 풀고 나는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아시아의 소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같이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싶다.

제10차 NEAR총회

제10차 NEAR 총회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새로운 동북아 공동협력시대 창조”를 주제로 대한민국 전라남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중국 6개 단체, 일본 4개 단체, 대한민국 12개 단체, 몽골 6개 단체, 러시아 6개 단체와 읍저버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12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의 환영사, 김재효 NEAR사무총장과 명현관 전라남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연합의 각종 주요활동보고, 회원지방정부의 대표발표, 총회의제 및 보고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사무국의 제안사항 발표와 이에 대한 회원단체의 의견수렴과 전라남도 선언문 발표로 진행되었다.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재효 NEAR사무총장



한국 전라남도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로 NEAR의장기 전달

연합 주요활동 보고

먼저, 전라남도에서 제9차 실무위원회 경과보고를 하였다. 그 내용은 차기 총회 개최지 선정, NEAR연합 현장개정,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신설 분과위원회 의결 심의, 사무국의 신비전 연구보고 등에 관해 보고하였다. 이어 NEAR사무국 주요활동보고에서 현재 NEAR사무국은 회원단체간 교류협력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R20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MOU체결을 하는 등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개최한 8개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회원자치단체의 활동보고가 이어졌다. 해양분과위원회(중국, 산둥성)은 해양 신흥 산업 및 블루실리콘밸리 조성에 관한 포럼을 개최, 환경분과위원회(일본, 토야마현)는 국제환경포럼 '국경 없는 자연'의 3개의 개별 프로젝트를 실시 내용, 방재분과위원회(일본, 효고현)는 한신·아와지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대응에 관한 강연 및 회원단체간 사례발표내용, 교육문화분과위원회(일본, 시마네현)는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동북아시아 국제문화팔레트 사업 개최 등 동북아시아지역의 상호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 생명의료분과위원회(한국, 충청북도)는 생명산업에 관해 참여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 등의 교류, 농업분과위원회(한국, 전라남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방안 등에 관한 안전으로 논의, 경제인문분과위원회(한국, 경상북도)에서는 동북아지역경제와 인문 교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관련 우수사례발표, 광물자원개발조정분과위원회(러시아, 마가단주)는 회원단체의 경제발전 전략 및 광산업체 및 투자회사 천연자원대환 정보공유 등 회원 단체 간 공동자원개발 가능성 모색 방안을 토의·발표하였다.

회원 대표발표

중국 허난성에서는 중무현 지역 사업, 일본 효고현에서는 몽골과의 국제환경협력 및 효고현의 환경기술에 관해 발표하였다. 일본 시마네현은 NEAR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활동 및 앞으로의 역할, 몽골 아르hang가이아이막에서는 농목축업의 개발정책, 몽골 불강아이막에서는 전반적인 불강아이막 소개,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에서는 지역발전사업,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는 스포츠관련 사업 및 '아시아의 아이들' 국제대회, 경상북도에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소개 및 홍보를 하였다.

총회 의제 및 보고 사항

제10차 총회의 주요 의제는 중국 지린성과 러시아 하카시아공화국의 연합 신규회원가입, 연합현장개정(실무위원회 개최시기 및 사무국의 장기존속과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총회 유치 신청한 회원 자치단체 중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를 총회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NEAR사무국의 제안사항

이번 총회에서 사무국은 NEAR회비제 도입방안과 분과위원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고, NEAR회비제 도입에 대하여 2015실무위원회에서 정식의제로 다루기로 결의하였으며, 분과위원회 효율적 운영방안을 사무국에서 회원단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1. 환영사를 낭독하고 있는 제10대 NEAR 의장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2. 러시아 마가단주 발표
3. 총회 의제발표 및 토론
4. 광양 POSCO 시찰
5.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시찰

전라남도 선언문

2014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전라남도 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0차 총회에는 중국, 일본, 대한민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 33개 회원단체들과 읍저버 및 비회원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총회는 '새로운 동북아 공동협력시대의 창조'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는 시대적 도전에 적극 부응하면서, 당면한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간,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하나되는 동북아시아 지역, 하나되는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1996년 창설 이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연합의 비전과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목표로 경제, 환경, 문화, 방재, 과학기술, 체육 분야에 이르기 까지 14개의 분과위원회 결성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회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연합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본 총회에서 연합의 발전을 위해 상정된 의제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총회는 신규회원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린성과 러시아 연방의 하카시아 공화국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2. 총회는 2016년에 열리는 제11차 총회를 2년 임기의 의장단체를 맡는 러시아연방의 이르쿠츠크주에서 개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3. 총회는 연합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상설사무국의 운영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장기적으로 존속하기로 전차 총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현장의 관련규정을 각각 개정하였다.
4. 총회는 연합창설 20주년이 되는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연합의 기본회비제 도입에 관한 사무국의 제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비도입의 목적, 운영방법 등에 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여 2015년 제10차 실무위원회에 정식의제로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5. 총회는 사무국에서 제안한 현행 14개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10차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
6. 총회는 사무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인턴십 제도(PioNEAR) 운영, 청소년 에세이 공모 프로그램과 더불어 회원단체가 참여하는 노래경연대회를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4년 10월 22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총회 참석자 단체 기념사진

연말연시특집

NEAR행사 뒷이야기



2014년 한 해 동안 NEAR사무국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많았다. 5월에 개최한 NEAR 실무자워크숍, 8월에 개최한 NEAR국제포럼, 10월에 개최한 NEAR 총회, 이 밖에 회원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과위원회도 개최하였다.

이번 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 회원단체의 NEAR 실무자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고자 하였다.



▼ 행사를 마친 후 대행업체인 피오디커뮤니케이션즈직원들과...



▲ 제10차 NEAR총회를 마치고 한 달 동안 동고동락했던 팀원들과 한 컷



◀ 2014 방재분과위원회 참석자들



▲ 제10차 전남총회 현장시찰에서
몽골 참석자분들과 함께



▲ NEAR국제포럼이 끝난 후, 만찬에서 발표자 성원용 교수님 모습



▲ 워크숍에서 몽골 친구와의 다시 만남



▶
당나라 여인들과
다도를 즐기는
김재효 사무총장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790-8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자곡로 394(자곡동 601) 포항테크노파크 3층

T. 054-223-2308, 2324 F. +82-54-223-2309 E-mail near@neargov.org Website www.neargov.org